



손흥민 “대표팀 주장 완장, 행복한 일”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장 자격으로 처음 A매치를 소화한 손흥민(토트넘)은 경기 후 기성용(스완지 시티)의 얼굴을 떠올렸다. 원래 주장인 기성용이 얼마나 많은 압박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재차 느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28일 오후 8시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온두라스와 친선경기에서 주장으로 나섰다. 대표팀 주장인 기성용이 허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지면서 출전 선수 중 A매치 경험이 가장 많은 손흥민이 하루 동안 완장을 차다 전반은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 손발을 맞춘 시간이 길지 않았던 탓인지

“책임감 느껴…기성용 얼마나 대단한지 느껴”

“월드컵에서는 이정도로 안돼…더 보여줘야”

선수들은 호흡에서 엇박자를 냈다. 패스와 드리블의 세밀함도 정상과는 분명 거리가 있었다.

손흥민은 후반 15분 왼발 중거리 슈팅 한 방으로 경기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승우(베로나)의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한 차례 드리블로 각을 만든 뒤 왼발 슈팅을 날려 선제골을 기록했다. 덕분에 한국은 온두라스를 2-0으로 꺾고 2018 러시아월드컵 전 4차례 평가전의 서막을 승리로 장식했다.

주장을 맡은 것을 두고는 “대표팀에서는 처음이라 감회가 새로웠다. 주장 완장을 차고 대표팀 경기를 뛰는 것은 꿈이고 행복한 일이다.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감격스러워했다. “팬들과 축구 관계자, 선수들, 코칭스태프, 감독님 등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 책임감을 더 느꼈다. (기)성용이랑이 얼마나 대단하고 잘하고 있는지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웃었다.

주장을 맡을 훌쩍 자란 손흥민은 A매치 데뷔전을 치른 이승우, 문선민(인천), 오반석(제주)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경험 없는 선수들이 이 정도로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는 것은 충분히 박수 받을만 하다. 내 데뷔 때를 떠올리면 시간이 빠르다고 느꼈다. A매치 데뷔가 어려운데 잘해줘서 너무 고맙다. 스쿼드가 좋아진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메인 무대가 아닌 월드컵이 메인 무대다. 그 선수들도 오늘 경기 잘했다고 만족하지 않았으면 한다” 손흥민은 2-0이라는 결과에 반색

하면서 “지금보다 더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간 훈련을 강도 높게 했는데 그 와중에 잘한 것은 칭찬할 부분”이라는 손흥민은 “월드컵에서는 이 정도로는 안 된다.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 승리를 지속하지 않고 더 배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다음달 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보스니아와 격돌한다. 월드컵 전 국내에서 열리는 마지막 평가전이다. 선전을 다짐하는 출전식도 예정됐다.

손흥민은 “4년 전 출전식 때 튀니지전에서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월드컵에 갔다. 축구팬들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월드컵에 간다고 인사하는 자리에서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오면 내가 축구팬이라도 기분이 안 좋을 것”이라며 “경기력이 문제가 아닌 결과를 가져야 한다고 꼭 말하고 싶다. 월드컵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가 꼭 경기력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KBO, 넥센 이면계약 사실 확인 6억원 전액환수

선수 개입 · 이득 취한바 없으므로 트레이드는 유효

KBO(총재 정운찬)는 지난해 히어로즈와 NC, KT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서 공시된 내용과 달리 이면으로 현금에 포함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확인, KBO 야구규약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해당 금액 6억원을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 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 3월17일 히어로즈 강윤구와 NC 김한별, 7월7일 히어로즈 윤석민과 KT 정대현·서의태 등 두 건의 선수 간 트레이드에 대해

당 구단은 양도·양수 협정서를 제출했고 KBO는 이를 승인, 공시한 바 있다.

그러나 KBO는 최근 두 건의 트레이드에서 구단이 제출한 양도·양수 협정서와 달리 히어로즈와 NC의 트레이드에서 1억원, KT와의 트레이드에서 5억원 등 총 6억원의 현금 계약이 이뤄진 사실을 해당 구단에 확인했다.

KBO는 양도·양수의 허위 보고에 명백한 규약 위반이며 리그의 질서와 투명성, 신뢰도를 훼손한 심

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이면 계약으로 신고하지 않은 계약 금액 6억원에 대해서는 야구발전기금으로 전액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법률, 금융, 수사, 회계 등 전문가들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면밀히 조사한 후 이르면 시일 내에 해당 구단 및 관련 담당자를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서는 선수가 직접 개입되거나 이득을 취한 바 없으므로 무효화하지 않기로 했다.

뉴스스

이승우·문선민, 베테랑 못지않았던 새내기들

신태용 “훈련때 파이팅 넘쳐…일 낼수 있겠다 느껴”



“우리 때는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있으면 기꺼워서 얼굴도 못 쳐다봤는데, (지금 선수들은) 첫 만남이 있는데도 10년 함께 한 선배처럼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훈련 때도 파이팅 넘치는 걸 보면 일을 낼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2018 러시아월드컵을 준비 중인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은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단 선수들을 두고 이렇게 평했다. A매치 출전은 물론 대표팀 소집조차 처음이지만 기대 이상으로 팀에 녹아들고 있다는 것이다.

28명 훈련 인원 중 처음 대표팀의 부름을 받은 이는 이승우(베로나), 문선민(인천), 오반석(제주) 등

3명이다. 이들은 28일 대구스타디움에서 열린 온두라스전에서 나란히 데뷔전을 치렀다.

한국 축구 최고의 재능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승우는 자신이 왜 호평을 받는지 몸소 증명했다. 왼쪽 측면 미드필더로 나선 이승우는 저돌적인 돌파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최진방에 포진된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잘츠부르크)의 예열이 되지 않았던 전반전에서 온두라스 수비진을 뒤흔든 유일한 선수였다.

상대와의 신경전에서도 주눅들지 않았다. 반칙으로 그라운드에 쓰러진 사이에 온두라스 선수가 다가와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자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대응했다.

뉴스스

공격 포인트라는 결실도 맺었다. 후반 15분 드리블로 수비의 사이를 분산시킨 뒤 옆에 있던 손흥민에게 패스를 연결했다. 손흥민의 슈팅이 득점으로 연결되면서 이승우는 도움을 기록했다.

이승우는 “국가대표는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고 선수를 하면서 계속 동기부여였다.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뤄서 기쁘고 결과가 잘 나와서 행복하다”며 “살렘과 빨리 뛰고 싶은 마음이었다. 형들이 소집 첫날부터 잘 도와주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줬다. 경기장 안에서 많은 대화를 통해서 좋은 플레이가 나온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연령별 대표팀에서와 다른 역할인 것 같다. 내가 골을 넣어야겠다는 압박감보다는 형들에게 어시스트나 더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고 싶은 위치인 것 같다”며 “내가 결정해서 팀을 살려줬다는 부담감보다는 형들에게 더 찬스를 주고 싶은 마음이다”고 설명했다.

코치들이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몸이 좋다”고 칭찬했던 문선민은 너털나위 없는 데뷔전을 치렀다. 문선민은 후반 10분 이정용(크리스탈 팰리스)를 대신해 투입됐다. 후반 28분에는 직접 골맛을 봤다. 황희찬의 패스를 받아 문전에서 상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왼발로 때려 득점에 성공했다. 문선민은 1970년 이후 A매치 데뷔전에서 득점을 터뜨린 33번째 선수가 됐다.

문선민은 “아직 부족하다. 의욕과 다로 잔심을 많이 했다. 골을 넣었지만 많이 아쉬운 경기였다”며 “항상 준비해 경기장에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러백 오반석은 후반 25분 투입된 사이에 온두라스 선수가 다가와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이자 곧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대응했다.

뉴스스

정현, 세계랭킹 1계단 상승…5주만에 19위 복귀

2주 연속 1위 나달…페더러 2위·즈베레프 3위



한국 테니스의 간판스타 정현(22·한국체대)이 5주 만에 개인 최

고 세계랭킹에 복귀했다. 28일(한국 시간) 발표된 남자프로테니스(ATP) 단일 세계랭킹에서 지난주 20위에서 한 계단 오른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정현은 랭킹 포인트 1775점을 기록했다. 19위였던 파비오 포그니니(31·이탈리아)가 18위로 올라섰고, 토마스 베르디흐(33·체코)가 18위에서 20위로 하락했다.

19위는 정현의 개인 최고 세계랭킹이다. 4월23일자 세계랭킹에서 19위에 올랐던 정현은 1주 뒤 22위로 밀려났다. 지난 14일자 세계랭킹에서 다시 20위로 올라선 정현은 5주 만에 19위에 복귀했다.

지난달 말부터 발목 부상에 시달린 정현은 바르셀로나오픈으로 클

레이코트 시즌을 시작하려다 대회에 불참했다.

이달 초 독일 뮌헨에서 열린 BMW오픈에서 4강까지 오르며 건재를 뽐내는 듯한 정현은 이어 열린 마드리드오픈에서는 1회전 탈락의 아픔을 겪었다.

정현은 발목 부상 여파로 BNL이탈리아 인터내셔널과 리옹오픈 참가도 철회했고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프랑스로프도 불참을 선언한 상태다.

세계랭킹 1위는 라파엘 나달(32·스페인)이 굳게 지켰다. 21일자 세계랭킹에서 1위를 탈환한 나달은 2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

2~5위는 로저 페더러(37·스위스), 알렉산드르 즈베레프(21·독일), 미린 칠리치(30·크로아티아), 그리고르 디미트로프(27·불가리아)로 변동이 없다.

류현진, 부상 이후 첫 롱토스 훈련

7월초 복귀 목표

사타구니 부상으로 부상자명단(DL)에 오른 류현진(31·LA 다저스)이 순조롭게 재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한국시간) 서던 캘리포니아 뉴스 그룹의 JP 훈스트라 기자에 따르면 류현진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를 앞두고 롱

토스 훈련을 했다. 마운드가 아닌 평평한 그라운드에서 포수를 앉혀놓고 공을 던졌다. 캐치볼, 롱토스 볼렌투구, 시뮬레이션 투구, 마이너리그 재활 등관 등의 과정을 거쳐야 복귀 시점을 잡을 수 있을 전망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류현진의 롱토스 소식을 전해들은 후 “좋은 뉴스”라며 반겼다. 올 시즌 6경기에 선발 등판해

29%이닝을 던지며 3승 무패 평균 자책점 2.12로 맹활약한 류현진은 부상 악재를 만났다. 지난 3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팀이 1-0으로 앞선 2회말 1사 후 왼쪽 사타구니에 통증을 호소하며 지진 강판됐다.

사타구니 근육 파열 진단을 받고 다음 날 DL에 오른 류현진은 부상 정도가 심해 후반기에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류현진은 7월초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재활에 매진하고 있다.

추신수, 시애틀전 1안타·1볼넷…8게임 연속 멀티출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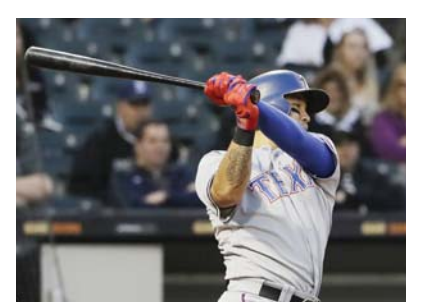
‘추추 트레인’ 추신수(36·텍사스 레인저스)가 8경기 연속 멀티 출루 행진을 이어갔다. 29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세이프 코필드에서 열린 2018 메이저리그(MLB) 시애틀 매리너스와의 원정 경기에 2번 지명타자로 선발출장, 3타수 1안타 1볼넷을 기록했다.

최근 6경기 연속 안타, 8경기 연속 멀티 출루, 15경기 연속 출루를 기록하는 등 뛰어난 타격감과 함께 선구안을 과시하고 있다. 시즌 타율은 0.261(207타수 54안타)로 소속

올랐다. 1회초 중견수 뜬공으로 물러난 추신수는 3회 볼넷을 골라냈다. 시즌 31번째 볼넷이다.

추신수는 1-0으로 앞선 6회 세 번째 타석에서 안타를 뽑아냈다. 1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시애틀 선발 마르코 곤잘레스의 3구째 77마일(124km)짜리 커브를 공략해 좌전안타를 만들어냈다.

8회 마지막 타석에서는 헛스윙 삼진을 당했다. 텍사스는 1-2로 역전패했다. 2연



패를 당한 텍사스는 시즌 22승3패를 기록해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최하위에 있다.

뉴스스